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영광군 송이도 몽돌해수욕장 전경. 해풍과 파도,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풍광이 여름철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영광군 제공>

“해상풍력과 관광 결합”...영광군 힐링 도시 도약

해풍과 노을의 명소 영광군이 해상풍력과 관광을 결합해 여름 힐링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가마미해수욕장과 송이도는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백수해안도로는 황홀한 석양을 배경으로 힐링 드라이브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또 칠산타워, 4대 종교 테마공원 등 역사와 문화, 종교가 어우러진 명소들이 영광을 단순한 여름 관광지를 넘어 사계절 치유도시로 확장하고 있다.

먹거리도 풍성하다. 영광굴비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최고급 수산물로, 황금

송이도·백수해안도로 ‘여름 명소’

풍력 투어·O&M 견학 관광 결합

산업·관광·소득 순환 모델 구축

빛 윤기와 고소한 풍미를 자랑한다. 모싯잎송편은 지역 고유의 전통과 건강한 식재료가 조화를 이루며 담백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어, 청보리한우, 간장게장 등은 고유의 생산 방식과 풍부한 영양으로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간척지쌀, 보리떡, 백합, 맛조개, 덕자

찜 같은 건강 먹거리도 관광의 또 다른 매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자연 자원과 전통 음식 문화에 힘입어, 영광군은 최근 해상풍력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송이도와 낙월도 인근 해역에서는 해상풍력 관찰 투어가 준비되고 있다. 관광객은 배를 타고 풍력 터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전 구조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

해상풍력 유지관리 거점 기지 견학도 관광 콘

텐츠로 개발 중이다.

고도화된 O&M 설비와 유지보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풍력 타워와 백수해안도로의 노을 경관을 결합한 야간 조명관광도 기획 중이다.

풍력의 실루엣과 서해의 노을이 어우러진 장관은 관광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관광상품은 영광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과 소득 재분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 위

에 관광 수입이 다시 지역 상권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자산을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영광은 산업과 관광, 소득이 순환하는 새로운 지속가능 도시 모델을 시도 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여름의 바다에서 시작된 영광의 실험은 관광과 산업, 환경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입체적 지역발전 전략”이라며 “그 중심에는 ‘햇빛 바람연금’이라는 새로운 지역경제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빈집 공급 귀촌 효과 ‘톡톡’

5년간 무상 제공·1만원 주택도

40가구 이주·정착...지역 활력

해남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해 공급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1동의 빈집 리모델링을 완료해 40가구가 이주·정착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9동의 추가 정비가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총 80동의 빈집 재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비된 빈집은 귀농 귀촌인, 청년 농업인, 농촌유학 가족 등에게 최장 5년간 무상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월 1만원 임대형 주택도 공급을 시작했다.

임대형 리모델링 주택은 최대 5천만원, 자가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된 농촌 빈집. <해남군 제공>

거주형 리모델링 및 철거 후 신축형 주택은 최대 3천만원의 정비비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교육과 주거를 함께 고려해 추진 중인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빈집사업’을 추진, 농촌 학교의 존립을 돕고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평면에서는 빈집 5동을 마을호텔 형태로 리

모델링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관광객과 관계인구를 위한 숙박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천255건의 빈집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남군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해당 자료는 향후 정비 대상지 선정과 빈집은행 운영 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또 내년부터 ‘농촌 빈집은행 지원사업’을 추진해 빈집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과 외부 수요자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거주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산”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한국섬진흥원, 우리나라 섬 3천390개 공식 확인

유인섬 480개·무인도서 2천910개

전남 전국 섬 60% 차지...2천18개

우리나라 섬이 총 3천390개로 공식 확인됐다. 정부가 전국 섬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한국섬진흥원(KIDI)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와 합동 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기준 유인섬 480개, 무인도서 2천910개 등 총 3천390개를 ‘섬의 날’인 8일 공표했다.

유인섬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자가 1명 이상인 섬을 말하며 무인도서는 만조 시 해수면 위에 드러나는 자

연 형상 섬 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뜻한다.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은 전남으로 유인섬 277개, 무인도서 1천741개 등 총 2천18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556개(유인 80·무인 476), 충남 285개(유인 37·무인 248), 인천 192개(유인 40·무인 152), 전북 130개(유인 25·무인 105), 제주 67개(유인 8·무인 59) 순이었다. 제주 본도는 ‘섬발 전촉진법’에 따라 제외됐다.

50개 미만의 광역시·도는 부산 45개(유인 4·무인 41), 경기 43개(유인 6·무인 37), 강원 29개(무인 29), 경북 22개(유인 3·무인 19), 울산 4개(무인 4)였다.

국내 섬 거주 인구는 81만3천475명으로 전체 인구(5천115만9천889명)의 1.59%다. 경남이 30만3천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1만4천317명, 전남 15만5천929명, 부산 10만18천49명, 충남 1만4천546명, 경북 9천99명, 전북 3천981명, 제주 3천551명, 경기 729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륙교 연결 여부, 여객선 운항,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소의도서’ 현황 등도 포함됐다.

한국섬진흥원은 향후 섬 개념과 데이터를 명확히 하고, 환경·안전·관광·교통 등 분야별로 연계 가능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 정보통계팀 관계자는 “섬지역 현황 데이터는 주민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섬 정책의 뿌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영수증 이벤트

3만원 이상 소비시 특산품 등 증정

강진군은 10일 “오는 15-16일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진을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사진)에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놀이장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방문객은 당일 강진군 내



상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첨을 통해 강진 대표 음식 밀키트, 먹개비

지류 쿠폰, 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물놀이장 내 이벤트 부스에서 진행된다.

참여는 행사 기간 내 당일 소비된 3만원 이상 영수증(재발행 영수증 제외, 카드·현금영수증 가능) 제출 시 가능하며, 1인 1회 1회 참여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경품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상권과 관광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 프로젝트”라며 “방문객들이 강진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며 지역 상가와 특산품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군, 수해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11월까지 농기계 무료 임대 등 지원도

함평군은 10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등록됐거나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이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멸실·파손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한다. 8월 주

민세(사업소분)도 감면해 수해 군민의 부담을 줄인다.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재난 피해 신고 농업인은 오는 11월7일까지 3개월간 농기계 임대료가 면제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해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점·동부점·서부점)를 방문하면 동일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세제 지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자원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영암군, 8월 주민세 14억8천500만원 부과

내달 1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납부 당부

영암군은 10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14억8천5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내역은 개인분 주민세 3만1천343건 3억4천5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5천105건 11억4천만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

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 7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통장·신용카드로 현금입출금기(CD/ATM) 납부, 온라인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192·2193)로 하면 된다. /영암=나동호 기자



관광안내·기념품 ‘Hi, Bye 완도’ 오픈

완도군과 완도군관광협회의회는 10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사업 일환으로 ‘Hi, Bye 완도(사진)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Hi, Bye 완도’의 이름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았을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Hi’와 완도를 떠날 때 작별 인사를 전하는 ‘Bye’를 결합했다.

‘Hi, Bye 완도’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여행을 마친 관광객이 완도의 추억을 담은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판매와 관광객 쉼터, 관광 안내·이벤트 등 소통과 완도 홍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장보고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등 완도만의 감성을 담은 50여 종의 다양한 여행 기념품을 전시 판매한다.

완도군 완도를 장보고대로 282(완도네시아 건물 1층)에 위치하였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에 마땅한 기념품 판매점이 없어 관광객들의 아쉬움이 컸었는데 ‘Hi, Bye 완도’가 그 점을 해소하고 완도 여행에서 꼭 둘러보아야 할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